

폐결핵의 표준치료에 실패한 결핵환자에서 심근침범이 확인된 미만성 결핵환자 1예

¹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 ²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호흡기 내과, ³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순환기 내과

*이진희¹, 심태선^{1,2}, 김대희^{1,3}, 정혜현¹

배경: 결핵은 모든 장기를 침범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침범은 약 1%에서 발생한다. 심혈관계 침범 대부분이 심낭이며 심근 침범은 매우 드물어서, 국내에서는 1례만 보고되어 있다. 본 저자들은 폐결핵의 표준치료 실패한 결핵환자에서 심근침범이 확인된 미만성 결핵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0세 여자 2개월전 시작된 전신 위약감으로 외부 병원에서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 양성으로 폐결핵 진단 후, 표준 4제 치료 시작하여 6개월 치료를 종료했다. 결핵균 배양 양성이었고 모든 약제 감수성이었다. 환자는 HIV 검사 음성이고 기저 면역저하 질환 없으나 심한 저체중을 동반했다. 결핵 치료 종료 1개월 전부터 양하지에 함요부종이 발생했고, 치료 종료 1개월 뒤 의식저하로 타원 내원하였다. 흉부X선사진상 우측 흉수, 심장비대 및 폐 우상엽 침윤소견의 악화가 관찰되었다. 객담 결핵균 PCR 양성, X-pert MTB/RIF 검사상 리팜핀 감수성이고, 흉수 ADA는 62 IU/L으로 다시 항결핵치료를 시작했다. 본 병원으로 전원 후 시행한 심장초음파에서 심낭액과 심근에 다발성 결절 소견이 관찰되었다. 중증의 저체중, 약물 흡수장애 가능성, 표준치료에도 치료실패한 점 등을 고려하여 Isoniazid 및 rifampin과 함께 2차약제인 시클로세린을 레빈튜브를 이용하여 복용했고, 아미카신, 레보플록사신, 리네졸리드는 주사제로 투약하고, prednisolone도 사용했다. 최종 결핵균 배양 양성이었고, MTBDRplus 검사상 isoniazid 및 rifampin에 감수성이었다. 치료 3주 후, 심장초음파 추적관찰에서 심근의 다발성 결절 및 심낭액은 호전 소견을 보였다. **고찰:** 심근의 조직소견 및 결핵균이 확인되진 않았으나, 합당한 초음파 소견과 항결핵치료에 반응으로 결핵성 심근염을 진단할 수 있었다. 약제 감수성 결핵임에도 불구하고 초치료에 실패한 이유는 중증 저체중과 약물 흡수 장애를 고려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주사치료가 가능한 항결핵약제들을 추가하여 치료했다. 현재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 음성 상태로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본 증례는 초치료 실패한 결핵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심근침범이 확인된 사례로, 증례 보고하는 바이다.

